

# 2019 병원경영자 역량 강화 과정

## - 전문가 초청 특강 안내 -

- 개최일시 : 2019. 6. 11.(화) 16:00 ~ 19:30
- 개최장소 :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성서) 5층 대강당
- 주 제 : ‘고령사회, 의료서비스 어떻게 짜야 하나?’
- 연 자 : 김철중 기자(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 프로그램

| 일 정           | 내 용          | 비 고           |
|---------------|--------------|---------------|
| 16:00 ~ 16:20 | 등록           |               |
| 16:20 ~ 16:30 | 개회           | 개회사 : 차순도 회장님 |
| 16:30 ~ 17:20 | 제1부          |               |
| 17:20 ~ 17:30 | Coffee Break |               |
| 17:30 ~ 18:30 | 제 2부         |               |
| 18:30 ~ 19:30 | 만찬           | 동산병원 내 식당     |

- 신청서를 제출한 분에 한하여 입장이 가능함 (수용가능 인원 200명)
- 신청기한내 신청서를 제출하더라도 수용가능인원이 200명이므로  
신청인원이 **200명을 초과 하면 선착순으로 조기 마감됩니다.**
- 참가문의 : 의료서비스개선위원회 간사 고서령(☎ 053-253-1572)
- 신청서 제출 : seo09@dgmt.or.kr(E-mail) / 053-253-1567(FAX)

붙 임 : 초청연자 프로필 1부.

## [참고] 초청 연자 프로필

### ■ 연 자 : 김철중

- 현 직 :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 학 력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졸업  
고려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 /  
고려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사



#### ○ 주요경력

- (現)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 조선일보 논설위원
- 세계과학기자연맹 회장
- 조선일보 의학전문기자
- 고려대의과대학 부속병원 전임의

#### ○ 수상내역

- 대한신경정신의학회 2012년 올해의 언론인 상
- 대한의사협회 2011년 최우수 의학기자 상
- 보건복지부 2010년 응급의료 유공자 표창
- 대한암(癌)학회 2010년 언론 상
- 대한의사협회, 녹십자 2010년 녹십자연론문화상
- 대한병원협회 2005년 중외언론인상

#### ○ 참고자료(김철중기자 칼럼 및 기사)

일본선 거동 힘든 환자 왕진·치아관리 서비스 한해 1000만건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일본의 지역 포괄 케어 현황]

일본은 2000년대 초반부터 고령자가 살던 동네에서 그대로 지내면서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받는 이른바 '지역 포괄 케어'를 시작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인구의 20%를 넘어설 즈음이다. 고령자가 늘면서 병원이나 요양원에 누워 지내는 환자가 급증하자, 전체 의료비 부담을 줄이면서 고령자들의 움직임을 늘려주려는 조치였다. 우리나라가 도입하려는 커뮤니티 케어도 일본형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김철중의 세상진찰] 초고령화에도 일본 대도시 왜 복적일까

조선일보 김철중 의학전문기자

노인클럽·노인 홈·음식 택배 등 특화된 인프라 덕에 유입 늘어  
우리도 10년 후 '도시 초고령화'... 의료·주거 대책 본격 마련해야

일본은 인구가 줄고 있다. 12년째다. 만 65세 이상 인구가 30%에 이른 초고령사회라 한 해 130여 만명이 세상을 떠난다. 태어나는 아기는 90여 만명이다. 그러니 자연 감소 인구가 일 년에 40만명이다. 2017년이 그랬다. 그래도 아직 인구가 1억2600여 만명이다.

## [김철중의 뉴스 저격] 日 노인 위한 '의료 사랑방' 5400곳... 살던 동네서 치매·요양 서비스

조선일보 | 일본 도쿄·가와사키=김철중 의학전문기자

입력 2019.02.01 03:13

이웃집 놀러가듯 방문, 물리치료 받고 입원까지... '포괄 케어' 현장 가보니

도쿄 시내에서 남쪽으로 지하철 30분 거리에 있는 인구 150만명의 가와사키시(市). 대형 쇼핑센터와 가와사키역을 뒤로하고 10분 걸으면 전형적인 일본 동네 마을이 계속 이어진다. 이발소와 야채가게, 편의점이 늘어선 골목 사이에 매일 노인 환자들이 들락거리는 집이 있다.

## [논설실의 뉴스 읽기] 개인약 지급기, 낙상 감지센서... 노르웨이 집은 스마트 요양원

조선일보 | 김철중 논설위원

◀본문 보기 ▶

입력 2019.02.28 03:13

김철중 논설위원이 본 디지털 실버 프로젝트 현장



김철중 논설위원

복합형 노르웨이가 고령자·치매 친화 정책과 기술로 병원이 아닌 집에서 활가장 노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규모 사업을 펼치고 있다. 이른바 디지털 실버 프로젝트다.

인구 533만명의 노르웨이와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18% 안팎. 주변 국가에 비해 그다지 높지 않지만 최근 67~79세 인구가 급속히 늘고 있다. 지난 10년간 46% 증가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영향이다. 70대 고령 인구가 높아 병원 입원이 급증하고, 요양원 부족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정부는 다양한 의료·복지 태크놀로지와 치매 친화 디자인으로 고령자가 가능한 한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국가 전체 의료비도 줄이고, 살던 곳에서 활발하게 움직이는 고령 사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노르웨이 상황은 우리나라 6~7년 후와 일치한다. 고령자 비율이 20%에 도달하고, 한국전쟁 후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 계층으로 급속히 유입되기 때문이다. 누워 있는 고령자로 요양병원 병상이 해마다 늘어가는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면 노르웨이의 실버 프로젝트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노인, 디지털로 세상과 연결

2015년부터 원격 케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고령자가 집에서 응급 호출 버튼을 누르면 지역보건센터 사회복지사나 간호사가 응대한다. 전화로 문제 상황을 파악하고 구급차를 보내거나 해결책을 제시한다.

인지 기능이 감소한 노인들은 외출 시 위치 추적 팔찌를 찬다. 위치는 보건센터와 차식물도 파악할 수 있다. 주택 현관에는 출입 센서가 달려 있어 고령자가 평소 외출 시간이 아닌 어반에 집을 나가면 알람이 울리고, 보건센터에 통보된다. 방문자를 체크할 수 있는 대형 스크린 인터폰도 있다.

고령자가 노쇠해지는 주된 원인은 사회적 고립이다. 노르웨이는 간단한 태크놀로지로 세상과의 소통을 독려하고 있다. 전화기에는 자식이나 친지 얼굴 사진이 박힌 전화번호 단축 코드 버튼이 설치돼 있다. 손주와 대화하고 싶으면 손주 얼굴 버튼을 누르면 된다. 컴퓨터도 고령 친화 디자인이다. 바탕 화면에 인터넷이나 페이스북 아이콘이 크게 놓여 있다. 별다른 조작 없이 한 번만 클릭하면 이메일을 볼 수 있다. 커져야 할 주요 뉴스 사이트가 크게 펼쳐지는 아이패드도 고령자에게 보급하고 있다.